FOCUS 아시아 민주주의 특별 사진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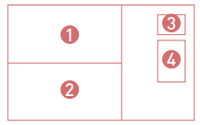
아시아의 봄

카메라를 통해 바라 '봄'
희망의 계절 '봄'

분.쟁.

conflict

VOICEYE
voiceye.com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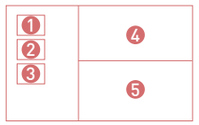
❶
아프간 정부의 아편 박멸 작전에
동행한 보안군들

❷
미얀마 정부군과 카친 반군의
교전을 피하는 카친 피난민들

❸
인도군은 카슈미르에서 반군을
수색하겠다며 앞 못보는 80세
노인 집에 박격포를 쐈다

❹
마을로 입성 중인
네팔 마오이스트 반군
ⓒ 이유경

우리 모두는 잠재적 난민(難民)이다. 전쟁, 식량난, 바이러스 등 무수한 위협들이 존재하는 글로벌 위기사회에서 우리는 누구나 난민이 될 수 있다.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,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희생자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,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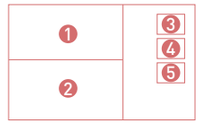
❶
내 이름은 그리스다 랄 네오파니
❷
한국에서 이주노동을 하던 남편이
사망하자 앨범과 사망진단서가 왔다
❸
이주노동자의 방
❹
창신동에 살던 라디카
그녀의 다락방에 모인 친구들
❺
전화결혼식_수년동안 돌아갈 수 없는
이주노동자들은 한번도 만나지 못한
사람과 전화상으로 결혼을 하기도 한다
ⓒ믹스라이스_양철모

길을 걷다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주민들을 마주하게 된다. 그러나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고 미소를 주고받는 등 '만남'은 쉽지 않다. 오랜 세월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정주민 아시아인들과 좀 더 나은 생을 살기 위해 그 국경을 넘는 이주민 아시아인들의 각기 다른 현재적 운명에 대해 생각해 본다.

만.남.
communication

희.망.

hope



1
방글라데시에 사는 로힝야 아이들이
마드라사(종교 학교) 수업을 마치고
귀가하고 있다

2
미얀마의 한 시장 안쪽 쓰레기
더미에서 재활용 거리를
고르는 마르마지 아이들

3
보트난민인 로힝야 소년

4
지구 상에서 가장 많은 불발탄이
묻혀 있는 라오스의 몽족 아이들이
총싸움 놀이를 하고 있다

5
미얀마 로힝야 피난민 캠프에
주둔 중인 경찰의 총격으로 부상을
입은 난민

ⓒ 이유경

어린이들은 알 수 없다, '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'를. 왜 어른들은 총과 무기를 들고 싸우는지, 왜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, 왜 자신들의 땅에 외국 자본이 쳐들어와서 삶의 터전을 훼손하는지 알지 못한다. 학교와 놀이터가 붕괴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속의 아이들. 그들의 눈을 가만히 응시해본다. 아이들의 내일이 따뜻하고 가슴 벅차기를.